『萬葉集』의 時間意識

金 成 俸*

目 次

Ⅰ. 序 論　Ⅴ. 常 世
Ⅱ. 季節感　Ⅵ. 「世」와 「世の中」
Ⅲ. 달(月)　Ⅶ. 結 論
Ⅳ. 死生觀

Ⅰ. 序 論

本 研究에 日本 最古의 和歌集인 『萬葉集』를 選擇하게 된 것은 大學에서 講義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和歌에 깊은 關心이 있기 때문이다.

「萬葉集」는 自然의 偉大한 모습을 率直하게 表現하고 있고, 人間의 기쁨, 슬픔, 괴로움을 노래한 作品으로 古代부터 日本人의 마음 속에 깊게 스며들어 오랫동안 愛讀되어 온 不朽의 古典文學이다. 또, 「萬葉集」의 精神인 「ますらおぶり」[1]는 단지 文學뿐만 아니라 思想이나 藝術에까지 헤아릴 수 없을 程度로 깊은 影響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人에게 깊은 影響을 주고 있는 「萬葉集」의 思想의 特質을 解明하기 위한 열쇠로

*人文大學 專任講師

1) 男性的이고 힘찬 歌風의 하나.

써 우선 重要한 것은 時間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時間은 개인으로서는 그 生과 死가 實現되는 場所이고, 또 社會나 國家로서는 그 歷史가 形成되는 場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萬葉集」에서 人間이 어떻게 時間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가는 살펴 보면, 自然과 人間과의 關係 그리고 人間社會와 그것을 超越한 것과의 關係도 알 수 있기 때문에 本 硏究의 題目을 時間意識을 擇하게 되었다.

時間論에 대해서 살펴 보건데, 옛날부터 現在까지 實로 여러가지 種類의 것이 있지만 文學 作品 속에서 時間을 論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本考는 田中元氏의 「古代日本人の時間意識」를 參照하면서 가능한 文學 作品 속에서 時間意識을 골라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文學은 時代와 人間의 反映이고 또, 그 時代의 思考나 感動이 그대로 反映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萬葉集」에 收錄된 노래는 4500余首의 방대한 양이고, 作者도 天皇부터 庶民에 까지 모든 階層에 미치고 있고, 時代 역시 450年에 걸쳐 있는 作品이기 때문에 硏究의 範圍를 定하고자 한다.

1. 季節感에서는 주로 農民들은 어떠한 時間意識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 보고자 한다.

2. 달(月)에서는 潮汐, 死와 再生, 性(男性, 女性), 曆法의 關係에서 時間意識을 살펴보고자 한다.

3. 死生觀에서는 女性과 男性이 死와 生에 대해서 어떤 時間意識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 보고자 한다.

4. 「萬葉集」 속에 나오는 常世, 「世」, 「世の中」라는 말 속에서 時間意識을 살펴 보고자 한다.

以上의 論考에서 「萬葉集」에 나타나 있는 時間意識의 全貌를 엿본다는 것은 不可能하겠지만 그 當時 世界를 構成하고 있는 基本的인 要素인 時間意識은 알 수 있다고 본다.

Ⅱ. 季 節 感

日本人들은 季節에 대한 銳敏한 感受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인데, 이 章에서는 이러한 季節感에서 時間意識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大陸의 曆法에 依해 四季를 區分하기 以前 古代 農民에게 지탱된 時間意識을 살펴 보면, 그들과 가장 關係가 깊은 것은 벼농사(稻作)라고 본다. 왜냐하면 大地를 生産의 手段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古代 農民에게는 벼(稻) 농사가 死活의 問題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時間意識도 벼의 成長에 깊은 關心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벼의 發芽, 成熟, 收穫이라는 植物의 生育 時間 單位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萬葉集」에서 大伴家持의 노래 一首를 보면,

「わが欲りし雨は降り來ぬ かくしあらば言擧せずとも 年は榮えむ」(萬葉 4124)

와 같이「年」(とし)는 時間 單位로 使用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年」에 대한 注를 보면,「年は, 穀物のみのりで、一みのりが一年なのである.」[2]라는 것과 같이 벼의 사이클(cycle)로 使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時間意識은 十二個月을 一年이라는 曆法에 依한 抽象的인 槪念이 아니고 벼(稻)의 成育을 通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季節이나 時節을 알고, 그리고, 그 收穫인 結果를 하나의「とし」라고 보았다. 이러한「とし」는 物理學的인 時間과는 異質인 時間이다. 왜냐하면, 農耕이라는 것은 되풀이 되는 四季의 自然에 맞추어 되풀이 되는 人間의 行爲(播種, 收穫)가 一致할 때 成立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四季의 推移를 農事에 앞서 아는 것이 그들의 生死에 關係되었다고 본다. 이런 點에서 볼 때 古代 農民들은 自然을 그대로 두고 人間 쪽이 自然에 同化共感하여 自然의 具體的인 景物의 變化, 例를 들면,

「石ばしる垂水の上の蕨の 萌え出づる春になりにけるかも」(萬葉 1418)

에서 가냘프게 돋아나는 고사리(蕨)에서 봄이 온 것을 느끼고, 또,

「春過ぎて夏來たるらし 白たへの衣ほしたり 天の香具山」(萬葉 28)

에서 香具山에 널려 있는 새하얀 빨래가 마르고 있는 것에서 여름이 온 것을 느끼고, 또,

「妹が手を取石の間ゆ 鳥が音異に鳴く秋過ぎぬらし」(萬葉 2166)

에서 새(鳥)의 울음소리에서 가을(秋)이 지나간 것을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이「蕨」,「白たへの衣」,「鳥が音」등에 의해서 季節의 推移를 느껴 季節이나 時節을 定하고 農作業의 基準으로 하는 소위 自然曆(農業曆)이 그들의 달력이라고 본다. 이러한 自然曆은 大陸의 曆法에 接하기 以前의 日本人의 時間觀의 重要한 一面임과 동시에 달(月)과 太陽 들의 天體에 根據를 둔 曆法을 發見하기 以前, 어떤 共同體 속에서 共有된 社會的인 人類共有의 時間意識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時間意識은 단순한 生産의 사이클(cycle)이 아니고, 人間 集團의 感情的 行爲, 豫祝이나 感謝 等의「祭り」가 添加된 時間이다. 例를 들면, 벼(稻)의 사이클(cycle)에 의해서 一年을 구분짓는「祭り」는 新嘗祭라는 것인데「萬葉集」에서는 題詞에 한 군데,

「新嘗會の肆宴に、詔に應ふる歌」(萬葉 4273)

와 그리고 歌中에 두 군데,

「にほ鳥の葛飾早稻を饗すとも その愛しきを外に立てめやも」(萬葉 3386)

2) 窪田空穗,「萬葉集評釋 第十卷」, 東京堂出版, 1984, p. 435.

「誰そこの屋の戸押そぶる 新嘗に吾背を遣りて齋ふこの戸を」(萬葉 3460)

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饗す」는 「新嘗をする」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新嘗」의 뜻을 辭典에서 보면, 「陰曆十一月の中の卯の日に宮中で, その年收穫した新米を神に供え, 天皇みずからも食する儀式」[3]이라고 써 있지만 中山太郎에 依하면 「現今では新嘗祭といへば,宮中の儀式に限られてゐるが 萬葉時代には弘く民間にも行はれたものである.」[4]라는 것과 같이 그 原形은 農民의 손에 依한 「祭り」이다 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왜냐하면, 「新嘗」라는 말은 「萬葉集」에서 전부 東國民謠에서 使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 없이 民間의 「祭り」이다.

그런데, 直接生產에 從事할 수 없었던 宮廷人의 祭式은 앞에서 본 時間意識과는 다르다고 본다. 例로 들면, 天皇이 藤原에서 命하여 春山萬花의 고움과 秋山千葉의 빛깔과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를 다투게 하셨을 때, 額田王이 노래로써 辨別한 노래,

「冬ごもり 春さり來れば 鳴かざりし 鳥も來鳴きぬ 咲かざりし 花も咲けれど 山を茂み 入りても取らず 草深み 取りても見ず 秋山の 木の葉を見ては 黃葉をば 取りてそしのふ 青きをば 置きてそ歎く そこし恨めし 秋山われは」(萬葉 16)

에서 보면, 앞에서 본 것과 逆이 되어 있다. 여기서 봄(春)이라는 時間意識에 있어서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은 새(鳥)나 꽃(花)를 느끼고 있고 가을(秋)이라는 季節의 時間認識에 있어서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은 단풍(黃葉)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季節이 소위 對象化되어 노래의 素材가 되어 있다. 換言하면, 歌人에게 있어서 季節은 하나의 觀念으로써 客觀化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래를 可能하게 한 것은 직접 흙에 파묻혀 季節을 敏感하게 感受하고 있고 實用的인 自然曆을 必要로 한 階級의 사람들이 아니고 宮廷이라는 場所에서 中國 大陸의 敎養과 知性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 노래의 成立 當時의 背景을 보면 天智天皇이 近江의 大津宮으로 遷都하고 나서 宮廷의 周圍에 大陸國인 文雅한 漢詩의 雰圍氣가 차 있는 時代라는 點이다. 따라서 中國 大陸의 四季 觀念의 知識으로 自然世界를 대할 때 時間的으로 말하면 瞬間만을 볼 수 없고 目前의 週邊, 前後 關係로 볼 때 時間的인 經過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季節이 現在 보이지 않는 事物로 連結된다. 이런 例는 漢文學의 影響을 強하게 받고 있는 宮廷歌人의 한 사람인 山部赤人의 노래

「……春べは 花かざし持ち 秋立てば 黃葉かざせり……」(萬葉 38)

에서도 觀念的으로 自然을 대하고 있다.

以上의 論考에서 萬葉時代 農民들의 季節이라는 時間意識은 自然의 具體的인 事物에 凝集해서 精止된 時間이다. 그리고, 이러한 時間 속에는 「祭り」가 添加된 時間이다.

3) 北原保雄編, 「全譯古語例解辭典」, 小學館, 1987, p. 619.
4) 中山太郎, 「萬葉集の民俗學的研究」, バルトス社, 1983, p. 125.

Ⅲ. 달(月)

이 章에서는 「萬葉集」에 나타나 있는 190首에 달하는 달(月)의 表現에서 그 當時 古代人들의 時間意識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울고 차(滿)고 하는 달의 時間意識이 潮汐과 連結되어 있다는 점이다. 例를 들면, 齊明天皇七年 天皇이 新羅征伐을 향한 그 途中 함께 同伴한 額田王이 伊予의 熟田津에서 읊은 노래를 보면

「熟田津に船乗せむと月待てば、潮もかなひぬ。今はこき出でな。」(萬葉 8)

에서 「月待つ」라는 語는 「萬葉集」에서 「月の出も待つ」라는 뜻으로 使用된 例는 있어도 「月の滿つるも待つ」라는 뜻으로 使用되어진 例는 없기 때문에 이 노래의 경우도 「月の出を待つ」라는 뜻으로 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出田考雄先生이

「月を待つとは月の滿つるを待つことなり。月と潮とは關係深きものにして滿月と新月との時に滿潮となり、上弦下弦に干潮となるものなれば、滿月を待つは卽ち滿潮を待つことなるなり。……潮の滿ちたる月の出でたるに對して「も」とよめるなり。」

라고 主張하듯이 이 노래가 달에 관한 것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달의 運行과 潮水의 干滿과의 關係에 注目해 볼 수 있는 것은 助詞 「も」의 用法에 따라 解釋해 보면 助詞「も」는 「月」와 「潮」의 兩方에 걸리고 「かなひぬ」도 「潮」뿐만 아니라 「月」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潮もかなひぬ」를 「潮も滿ちた」라고 解釋한다면 當然 「月も滿ちた」라고 解釋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령, 「月待てば」가 「月の出を待つ」라는 뜻이라 해도 「潮もかなひぬ」와 깊게 關連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滿月을 待望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 點에서 볼 때 「月を待つ」라는 時間意識은 적어도 數日의 日數의 經過를 包含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달(月)만이 아니고 潮汐도 (그저께→어제→오늘)이라는 식으로 점차 大潮로 되어 가는 것이 눈에 선하다. 그리고, 이와같이 달이 기울고 차고 하는 知識이 潮汐과 關連이 되어 있는 것은 現代人과 같이 壁에 걸린 달력(calendar)에 의한 것이 아니고, 萬葉人들이 直接 피부로 느끼고 自己들의 확실한 눈으로 달이 차고 기울고 하는 狀況이나 潮汐의 干滿을 把握해서 切實한 生活 體驗에 依해서 달(月)과 潮汐과의 關係를 알고 있는 生活曆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바다에 살고 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生活의 不可缺의 技術은 潮汐의 豫測이다. 그리고 이러한 潮汐의 경우는 거의 月齡에 의해서 定해지기 때문에 古代 海人의 集團에게 있어도 「月讀み」는 重大한 그들의 死活을 건 知識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

5) 森脇一夫著, 「萬葉の美意識」, 樓楓社, 1974, p. 44.

當時의 海人들은 太陽, 달(月), 地球가 一直線上에 있는 新月 및 滿月 때에는 大潮가 되고, 地球에 대해서 太陽과 달(月)이 直角의 位置에 있는 上弦, 下弦의 달(月) 때에는 小潮가 된다는 知識은 그들 生活의 經驗에서 알고 있었다고 본다.

둘째, 달(月)이 기울고 차고 하는 時間意識이 죽음(死)과 再生에 連結되어 있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달(月)이 기우는 것은 柿本人麿가 妻의 죽음(死)에 茫然自失해서 읊은 노래를 보면

「……渡る日の 暮れ行くが如 照る月の 雲隱る如 沖つ藻の 靡かし妹は 黃葉の 過ぎて去にきと 玉梓の使の言へは……」(萬葉 207)

와 같이 죽음(死)의 이미지(image)로 連結되어 있고, 또 持統朝 皇太子의 哀悼에 使用된 노래를 보면

「あかねさす日は照らせれど ぬばたまの夜渡る月の隱らく惜しも」(萬葉 169)

이 노래의 意味는 天皇은 儼然히 살아 계셔도(日は照らせれど) 그러나, 夜空을 運行하는 달(月)이 숨는다는 것은 天皇으로 이어져야 할 皇太子를 달(月)로 比喩하여 皇太子의 돌아가심이 달(月)이 기우는 것과 같이 섭섭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도 죽음(死)의 이미지(image)가 달(月)이 기우는 時間意識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에 달(月)이 차 있는 望月의 이미지(image)를 보면,

日並皇子尊殯宮之時, 柿本朝臣人麿作歌一首
「天地の 初の時 ひさかたの 天の……望月の 滿しけむと 天の下 四方の人の 大船の 思ひ頼みて 天つ水 仰ぎて待つに……」(萬葉 167)

와 같이 밝은 美가 나타나 있는데, 이 望月의 밝은 美가 復活을 祈願하는 노래로 使用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기서 노래를 만든 그 때의 狀況을 알 수 있는 題詞에서「殯」이라는 字인데 그 意味를 보면,「殯は本葬に先立って假りに遺骸を安置しておくことで、この期間中は, 生死未分と考えられ, 復活を祈って歌舞が奏せられたのである.」[6]라는 것에서 復活을 祈願하는 儀禮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달(月)의 性에서 時間意識을 살펴보면, 湯原王의 노래

「天に坐す月讀壯子幣はせむ今宵の長さ五百夜繼ぎこそ」(萬葉 935)

에서와 같이 男性인 月神인 曆의 時間을 管理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또 作者 年代 未詳의 作品

「み空行く月讀壯子夕さらず目には見れども寄る縁も無し」(萬葉 1372)

「夕星も通ふ天路を何時までか仰ぎて待たむ月人壯子」(萬葉 2010)

6) 樓井溝譯注「萬葉集(上)」, 旺文社文庫, 1974, p. 384.

「秋風の清き夕に天の川舟漕ぎ渡る月人壯子」(萬葉 2043)

「天の海に月の船浮け桂楫かけて漕ぐ見ゆ月人壯子」(萬葉 2223)

에서도 月神이「月讀壯子」乃至「月人壯子」라고 記錄된 것과 같이 男神으로 連結되어 있다. 이것을 달(月)의 盈虧現象週期를 모르는 植物採集段階社會에서 信仰의 對象이 되고 있었던 것이 단지 文藝的으로 나타나게 된 것에 불과하고 食物을 栽培하는 農耕社會에서 密接한 關係가 있는 달(月)은 當然히 女性과 連結되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 生活에 密接한 關係가 있는 달(月)이 차(滿)고 이지러지는 週期가 女性의 生理 週期와 같이 일개월마다 正確하게 돌아온다는 點에서 合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달(月)의 盈虛에 의해서 몇월 며칠이라고 헤아려 農事를 짓는 農耕曆과 女性이 지난 달(先月) 生理 期間에서 헤아려 每月 定期的으로 오는 이달(今月)의 月經日을 豫測할 수가 있는 生理曆과 一致한다는 點이다. 그렇다면「萬葉集」에서 달(月)을 女性으로 關係시켜 볼 수 있는 노래를 보면,

「天橋も 長くもがも 高山も 高くもがも 月讀の 持てる變若水 い取り來て 君に奉りて 變若得てしかも」(萬葉 3245)

에서「月讀」(月神)이「變水」의 管理者로 생각되게 明示되어 있다는 點인데, 여기서「變水」를 女性의 젊음의 象徵인 月經의「月汁」(血)으로 볼 수 있다는 點이다. 왜냐하면, 女性이 늙어버리면 廢經期가 찾아오는 것과 같이 먹으면 젊어진다는「變水」·「若水」의 原泉은 古代人에게는 月經의「月汁」(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變水」의 管理者인 月神에게 어떤 時間意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노래에서「變若」라는 意味를 생각해 보면,「萬葉集」의

「古ゆ人の言ひくる老人の變若つといふ水そ名に負ふ瀧の瀨」(萬葉 1034)

에서는 젊어진다는(回春)의 뜻이고, 또,

「石網のまた變若ちかへりあをによし奈良の都をまた見なむかも」(萬葉 1046)

에서는 젊어진다(成年에 達한다)라는 뜻으로 全部 復活의 意味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復活의 意味는 죽음(死)에서 삶(生)이라는 것보다 달(月)의 盈虧現象과 비슷한 (幼年→成年→老年→若年)으로 變化해 가는 過程의 時間意識을 말하는 後活로 보고 싶다. 그리고,「若水」를 떠 올린다는 것은 물의 淸淨性으로 낡은 時間을 再生한다는 뜻에서,「若水」로 떡국을 해 먹는다는 것이 新年의 出現이 된다는 意識이 아닌가 싶다.

네째,「萬葉集」의 달을「古今集」의 달과 比較해 보면 動的인 時間意識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작 30首되는「古今集」의 달의 이미지(image) 보면,

「月見ればちぢにものこそ悲しけれわが身一つの秋にはあらねど」(古今集 173)

「佐保山のははそのもみち散りぬべみ夜さへ見よと照らす月影」(古今集 281)

에서와 같이 凝固해서 움직이지 않는 印象이 強한데 반해서, 「萬葉集」의 달을 보면,

「ぬばたまの夜渡る月をとどめむに 西の山邊に關もあらぬかも」(萬葉 1077)
「ぬばたまの夜渡る月をおもしろみ わが居る袖に露そ置きにける」(萬葉 1081)

에서와 같이 「古今集」의 表現에 없는 「渡る月」라는 表現이 많고, 또

「夕闇は路たづたづし 月待ちて行かせ わが背子その間にも見む」(萬葉 709)

에서와 같이 「古今集」에 없는 「月待つ」라는 表現이 많다. 이런 點에서 볼 때 萬葉人은 活動的이고 生活的인 時間意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中國大陸의 曆法에 依해 달의 時間意識을 把握하고 있다는 點이다. 例를 들면,

「ぬばたまの夜渡る月を 幾夜經と數みつつ妹は吾待つらむぞ」(萬葉 4072)
「月數めばいまだ多なり しかずに霞たなびく春立ちぬかと」(萬葉 4492)

二首 모두 「萬葉集」의 最後期 大伴家持의 노래인데 여기서는 달이 차고 기울고 하는 時間意識을 中國大陸의 曆法에 依해 把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92番에서 自然을 보면 봄인 것 같은데 中國大陸의 太陰曆에 依해서 보면 겨울이라는 意味이겠지, 이것으로 보아 萬葉後期는 이젠 曆法이 널리 普及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Ⅳ. 死 生 觀

이 章에서는 死生觀 側面에서 時間意識을 살펴 보고자 한다.

萬葉人에게는 靈魂이라는 것은 肉體를 떠나 어디로 가는가라는 他界觀은

「久方の天知らしめる君ゆゑに日月も知らに變ひ渡るかも」(萬葉 200)

「留め得ぬ壽にしあれば敷妙の家ゆは出でて雲隱りにき」(萬葉 461)

와 같이 天界로 올라 가는 것과

「遠つ國黃泉の界に罵の名が向々云々」(萬葉 1804)

「稚ければ道行き知らじ幣はせむ黄泉の使負ひて通らせ」(萬葉 905)

와 같이 地中으로 들어가는 他界觀을 볼 수 있다.

이런 他界觀 속에서 萬葉人의 죽음(死)에 대한 觀念을 보면,

「大君は神にしませは天雲の五百重が下に隠りたまひぬ」(萬葉 205)

「百傳ふ磐余の池に鳴く鴨を今日のみ見てや雲隠りなむ」(萬葉 416)

와 같이 죽음(死)이란 人間이「身을隱すもの」라고 表現하고 있는 것은, 죽음(死)을 삶(生)의 休身이고, 죽음(死)은 삶(生)의 延長이라고 본다. 이런 點에서 볼 때, 萬葉人은 生과 死의 關係가 不明瞭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萬葉人의 死生觀을 잘 엿볼 수 있는 노래는 天智天皇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죽음(死)의 前後를 側室의 女性들이 읊은 노래를 보면,

天皇 聖躬不豫の時、大后の奉れる御歌一首

「天の原ふりさけ見れば大君の御壽は長く天足らしたり」(萬葉 147)

一書に曰く、近江天皇、聖躰不豫御病急かなる時、大后の奉る御歌一首

「青旗の木幡の上をかよふとは目には見れども直に逢はぬかも」(萬葉 148)

天皇崩りましし後、倭大后の作りましし御歌一首

「人はよし思ひ止むとも玉鬘影に見えつつ忘らえぬかも」(萬葉 149)

天皇崩りまし時、婦人が作る歌一首

「うつせみし 神に堪へねは 離り居て 朝嘆く君 放り居て わか戀ふる 君ぞ昨の夜夢に見えらる」(萬葉 150)

天皇の大殯の時の歌二首

「かからむの心知りせば大御船泊りに標結はましを」(萬葉 151)

「やすみししわご大君の大御船待ちか戀ふらむ志賀の辛崎」(萬葉 152)

大后の御歌一首

「鯨魚取り 淡海の海を 沖放けて 漕き來る船 邊附きて 漕き來る船 沖つ櫂 いたくな撥ねそ 邊つ櫂 いたくな撥ねそ 若草の夫の 思ふ鳥立つ」(萬葉 153)

石川夫人の歌一首

「ささ浪の大山守は誰がためか山に標結ふ君もあらなくに」(萬葉 154)

山科の御陵より退き散くる時、額田王の作る歌一首

「やすみしし わが大君の かしこきや 御陵仕ふる 山科の 鏡の山に 夜はも 夜のことごと 晝はも 日のことごと 哭のみを泣きつつ在りてや 百磯城の 大宮人は 去き別れなむ」(萬葉 155)

긴 引用이었지만 總計 九首를 살펴보면, 病臥, 危篤, 死, 殯, 本葬이라는 過程이 時間的인 흐름에 따라서 配列되어 있다. 最初의 147番은 題詞에서 「聖躬不豫の時」와 같이 天皇이 병환으로 계실때 言靈의 힘으로 病의 治癒를 期待하는 노래이고, 148番은 病狀이 急變해 危篤의 狀態에 들어간 때, 149番과 150番은 死後의 노래, 151番과 152番은 大殯[7], 153番과 154番은 死者가 肉體를 떠나면서, 아직 生前의 가까운 사람 주위에 머물러 있는 魂의 存在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最後의 長歌는 本葬했을 때 노래이다.

이와 같은 死生觀의 時間的인 흐름의 配列은 日常 속을 흘러 가는 直進的 時間과 같은 것같이 보이지만, 잘 보면 이들 노래에 生과 死의 두 世界가 描寫되면서 兩者 사이에는 嚴密한 隔絶이 存在하고 있지 않다. 149番의 노래를 보면, 題詞에서 「天皇崩りましし後」라는 것과 같이 死後의 노래인데 生前의 天皇의 모습을 보고 있다. 삶(生)에서 죽음(死)이라는 明確한 區別에는 非連續인 時間이 介在하고 있을 터인데, 天皇이 危篤狀態인 것인지 이미 魂이 하늘에 올라가고 죽은 것인지 生死不分明한 曖昧模糊한 狀態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九首를 잘 보면, 生者와 死者을 連結하는 「夢」, 「山」, 「海」, 「鳥」, 「標繩」라는 像들이 있다라는 것은 現世(生의 世界)와 他界(死의 世界)를 同一次元性이라는 것이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生과 死 雙方의 世界 사이에 確實한 斷絶이 意識되지 않고 雙方이 하나의 連續의 世界로서 把握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時間으로 말하면 生命의 永遠性의 保證 혹은 時間의 새로운 再生을 企圖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이런 思考가 나타나 있는 九首는 作者가 모두 女性들이라는 點인데, 앞 章의 달에서 살펴 보았듯이 女性은 달(月)이 기울고 차고(復活)하는 現象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과 같은 再生의 月經이 있기 때문에 그런 思考로 連結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死生觀의 時間性도 그 後 天武天皇 時代의 男性에 이르면 變質된다.

例를 들면,

柿本朝臣人麿、泊瀬部皇女忍坂部皇子に奉る歌

「…… けだしくも 逢ふやと思ひて 玉垂の 越知の大野の 朝露に 玉裳はひづち 夕霧に 衣は沾れて 草枕 旅宿かもする 逢はめ君やも」(萬葉 194)

反歌一首

「敷細の袖かへし君玉垂の越野過ぎゆくまたも逢はめやも」(萬葉 195)

7) 本葬되기 前, 死者를 假埋葬해 두는 儀禮, 죽은 후 魂을 재차 肉體로 되돌려 再生을 바라는 宗教儀禮

여기서 194番의 노래를 보면 행여나 어쩌면 만날까 여겨지어(けだしくも逢ふやと思ひて)라고 말하지만 終局에서는 만날 수 없다라는 不可能性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난다. 더우기 195番의 「またも逢はめやも」라고 強한 反語는 死者가 결코 生者를 만날 수 없다라는 人間的인 時間의 自覺을 느낄 수 있다. 즉, 여기서는 生과 死 사이에 확실한 斷絶을 認定하고 있고 死를 生의 彼岸의 世界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V. 常　　世

中國의 老莊思想이나 神仙思想이 언제 日本에 傳來되었는지는 모르나 「萬葉集」에 老莊思想이나 神仙思想이 攝取된 痕迹을 볼 수 있다. 例를 들면,

「とこしへに夏冬行けや裘扇放たず山に住む人」(萬葉 1682)

「心を無何有の鄕に置きてあらば藐姑射の山[8]を見まく近けむ」(萬葉 3851)

「昔、老翁あり、……慮はざるに、偶神仙に逢へり、……」(萬葉 3791)

「水江の浦島の子が……老いもせず死にもせずして永き世に……」(萬葉 1740)

와 같이 神仙思想의 影響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永久히 변하지 않고 不老不死인 超現實世界를 다른 말로 바꾸면, 「萬葉集」에 나타나는 常世(とこよ)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理由를 例를 들면, 常世의 나라가

「我妹子は常世の國に住みけらし昔見しより變若ましにけり」(萬葉 650)

「……常世に至り……二人入り居て老いもせず死にもせずして……」(萬葉 1740)

에서와 같이 不老 내지 不老不死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常世의 思想과 神仙思想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常世의 나라는 神仙思想에서 憧憬하는 蓬萊山이라고 보기 싶다. 왜냐하면 位置面에서 보아도 둘다 假想的인 觀念의 地名으로 東方 海上 어딘가에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常世에 대해서는 岩波萬葉集四(p. 290)注에 의하면, 「海の向うに永久の生命のある國があると思わわていた」라고 써 있다. 그리고, 蓬萊山에 대해서는 中古時代의 作品 「竹取物語」에서 살펴 보면, 車持皇子가 「蓬萊の玉の枝」를 구하러 가

8) 「藐姑射の山」-「莊子」에 있는 思想上의 靈地로 不老不死의 神仙이 살고 있는 산.

지 않고 千日間 細工人들과 함께 같은 곳에 숨어서 가짜의「蓬萊の玉の枝」를 만들어「かぐや姬」에게 구해온 過程을 말한 장면,

「海にただよひて……海の中にわづかに山見や……天人のよそほしたる女、山の中より出で來て、……女答へていはく、『これは蓬萊の山なり』と答ふ」(竹取物語)

에서「蓬萊山」이란 實際 다녀온 곳이 아니고 當時 中國의 民間信仰 乃至 道教思想인 神仙思想의 影響을 받아 東方海上 어딘가에 있다고 여기는 假想的인 觀念의 地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浦島傳說(萬葉 1740)에서 나오는 常世의 仙境을 日本書記의 雄略天皇 때의 古傳說

「秋七月に、丹波國の余社郡の管川の人瑞江浦嶋子、舟に集りて釣す。遂に大龜を得たり。便り女に化爲る。是に、浦嶋子感りて婦にす。相遂ひて海に入る。蓬萊山に到りて仙衆を歷り覩る。」[9]

에서 高橋虫麻呂가 자유스러운 創作을 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萬葉集」의 常世의 나라는 蓬萊山에 連結시키기 보다 常陸의 나라와 連結시켜 보고 싶다. 왜냐하면, 常世와 常陸이 같은 字「常」를 취하고 있다는 點에서「常陸國風土記」를 보면,

「それ常陸の國は、堺は是廣大く、地も亦緬邈にして、土壤も沃墳え、原野も肥衍えて、……左は山にして右は海なり。桑を植ゑ、麻を種かむには、後は野にして前は原なり……物産の膏腴なるところなり。古の人、、常世の國といへるは、蓋し疑ふらくは此の地ならむか。……」[10]

와 같이 常陸이 常世라는 것이 나오고, 그 地方 역시 常世와 비슷한 神仙境이 있다. 例를 들면, 常陸를 흐르는 久慈川를 보면,

「……夏は冷かして冬は溫かなり。湧き流れて川と成れり。夏の暑き時、遠邇の鄕里より酒と肴と齎資て、男女會集ひて、休ひ遊び飮み樂しめり。」[11]

와 같이 氣候가 좋고 物質이 豐富한 살기 좋은 나라로 描寫되었다는 點이다. 그리고 常世의 神仙境(浦島傳說, 萬葉 1740)를 노래한 作者 高橋虫麻呂에 대해서 보면,「養老年間の一時期地方官として常陸に在住」[12]했다는 點이다.

이런 點에서 볼 때 常世란 表現은 그 當時 大和를 中心으로 比較的 좁은 空間 內에서 生活하고 있는 萬葉人들이 그들의 視野를 大舞臺로 擴大해서 먼 곳에 憧憬을 時間的인 遠近法에 依해 나타내려고 한 手法이라고 본다. 一種의 時間의 空間的 表現이다.

9)「日本書紀上」, 日本古典文學大系67, 岩波書店, 1982, p. 497.
10)「風土記」, 日本古典文學大系2, 岩波書店, 1984, p. 37.
11)「風土記」, 日本古典文學大系2, 岩波書店, 1984, p. 87.
12) 樓井溝譯注, 萬葉集(中), 旺文社文庫, 1980, p. 551.

이러한 常世의 나라 憧憬에서는 그 當時 中央(大和)에서 派遣된 官人들이 常陸이란 土地에 대한 期待라고 본다. 왜냐하면, 常陸國風土記에 보면

「大海の邊の石壁に、觀世音菩薩のみ像を彫り造りき。今に存り。因りて佛の濱と號く。」[13]

와 같이 바다 언덕에 觀世音菩薩像이 彫刻되었다는 것은 新文化佛教가 受容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이 點에서 萬葉人은 新世界, 未來의 希望이 있는 土地의 憧憬으로 常陸地方에 있는 常世가 나온 것 같다.

Ⅵ. 「世」와 「世の中」

「萬葉集」에는 「世」(代)와 「世間」(世の中)가 많이 나오는 데 그 속에 나타나 있는 時間意識을 살펴보고자 한다.

「世」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見解가 있겠지만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것은 「竹の節と節との間をいう「よ(節)」と同語源で, 時間的 空間的に限られた區間」[14]이라는 解釋인데, 그것을 空間的으로 생각하면 시작과 끝이 있는 限定된 空間이다. 그 意味는 넓은 世界에서 차츰 限定되어 가서 마침내 個人이 살고 있는 「人類の社會」[15]라는 世界에 到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狀態를 가진 限定된 空間이 空間的 意味의 「世」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人間の生活する周圍をとりまく自然環境」[16]이라는 意味에서 볼 때 空間的 自然環境의 現象이란 一期와 같은 有限한 時間性과 連續的인 無限한 時間性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相反되는 二重性이 「世」라고 본다.

그러면, 「よ」의 用例를 分類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 壽命·年齡, 生涯·一生·人生이라는 意味의 「よ」…… 「萬葉 10·886·3448·4441, 116·891·892·1456·1457·3994」

「君が代も吾が代も知る磐代の岡の草根をいざ結びてな」(萬葉 10)

이 노래의 意味는 "그대의 목숨도 내 목숨도 다스리는 磐代 언덕 풀을, 자아매어봅세"라는 것으로 長壽를 祈願하는 노래이다. 여기서 「代」(よ)는 壽命(목숨)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自然의 풀에 依託되었다는 것은 되풀이 되는 自然의 永遠한 時間 속에 長壽가 同化되어 간다는 것이다. 따라

13) 「風土記」, 日本古典文學大系2, 岩波書店, 1984, p. 91.
14) 「日本國語大辭典」20, 日本大辭典刊行會, 1980, p. 40.
15) 「新版廣辭林」, 三省堂, 1971, p. 2049.
16) 「日本國語大辭典」20, 日本大辭典刊行會, 1980, p. 40.

서 長壽란 되풀이 되는 自然 속에 되는대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보고 싶다. 즉, 自然과 人間은 葛藤하는 關係가 아니고 自然과 癒着하는 것에서 永遠한 시간이 保證되고 있다고 본다.

B. 年代, 時代, 年月이라는 긴 期間을 가리키는「よ」……

「萬葉 50·304·322·382·485·894·917·1006·1047·1065·
1740·1801·1807·1809·2002·2007·3791·4094·4106·
4164·4165·4205·4211·4221·4256·4267·4360·4465」

「……遠き代に ありける事を 昨日しも 見けむかごとも 思ほゆるかも」(萬葉 1807)

확실하지 않은 먼 時代의 過去가 어제와 같이 본 것과 같이 생각된다는 이 노래에서는 어떤 具體的인 時間보다 抽象的인 時間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過去가 現在에 通하고 現在에 있어서 實現하고 있다라는 時間意識의 構造는 循環하는 時間이다. 그리고,

「 古へに君が三代經て仕へけり吾大主は七世申さね」(萬葉 4256)

에서「三代」·「七世」는 時間的인 意味인 것은 確實하고 또 變化하는「世」, 다시금 말하면, 時間的으로 變化하는「世」를 가리킨다고 본다.

먼 時代가 어제와 같이 생각되고, 三代, 七世라는 非科學的으로 생각되는 長壽의 願望도 詩의 比喩的인 表現이고, 그리고, 長壽를 祈願하는 것도 어느 時代든지 人間의 願望의 하나이겠지만 萬葉人이 바라는 長壽의 志向은

「……釣船の とをらふ見れば、古の 事ぞ思ほゆる。……永き世に ありけるものを ……後
つひに 命死にける 水江の 浦島の子が 家所見ゆ。」(萬葉 1740)

에서 不老不死의 仙境의 이야기의 視點이(現在→過去→現在)라는 것과 같이 過去라는 時間을 意識하면서 現在에 살고, 未來로 향해 가는 時間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現在에서 未來로 쭉 길게 늘려진 時間이 아니고, 現在 속에 永遠의 길이와 無限한 擴大가 있다고 하는 不可思議한 錯覺의 時間이다.

C. 「個人が他の個人と密接にかがわりあって生活する場·世間·社會·世の中」라는 意味의「よ」

……「萬葉 348·349·443·465·482·729·733·805·813·904·1269·1785·1787·
1857·2585·2930·3332·3625·4106·4220·4408」

「この世にし樂しくあらば 來む世には虫に鳥にもわれはなりなむ」(萬葉 348)

「生ける者つひにも死ぬるものにあればこの世なる間は樂しくをあらな」(萬葉 349)

위 노래 二首는 佛教의 因果應報思想 위에 現在의 享樂을 追求하고 있고,

「うつせみの世は常なしと知るものを 秋風寒み偲ひつるかも」(萬葉 465)

「うつせみの世の事なれば 外に見し山をや今はよすかと思はむ」(萬葉 482)

위 노래 二首는「うつせみの世」(無常한 現世)라는 佛教思想 위에 視點은 現在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C의 例에서 노래들은 佛教思想 위에서 自己들이 處해 있는 現實 속에 時間意識이 멈추어 있다고 본다.

以上에서 A·B·C의「世」를 要約하면,「世」란 人間이 살고 있는 現在라는 視點으로 퍼져가는 時間的 空間的 世界이다. 이 속에서 時間性이란 血緣的 氏族共同社會에서 抗爭·對決이라는 關係에서 생겨난 時間이라기 보다, 自然과 親和的인 關係에서 發生한 循環的 時間이라고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서 現世 享樂的인 生을 살고 싶다라는 思考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에「世」라는 말에「中」를 첨가한「世の中」(世間)라는 말은「古事記」와「日本書紀」등에는 나오지 않고,「萬葉集」에서도 比較的 新時代에 들어간 後에 347·351·420·442·466·478·643·738·793·800·801·804·819·886·892·893·897·1045·1321·1410·1459·1740·2383·2442·2888·2924·3336·3690·3761·3791·3850·3963·3969·4160·4214·4216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가 거의 佛教思想과 連結되었다는 것은「世」에서「世の中」으로 變化의 裏面에는 새로운 大陸文化인 佛教思想이 介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렇다면, 노래를 보면,

「世間を憂しとやさしと思へども 飛び立ちかねつ鳥にしあらねば」(萬葉 893)

「世間はまこと二代は行かざらし 過ぎにし妹に逢はなく思へば」(萬葉 1410)

「世間は數なきものか 春花の散りの亂ひに死ぬべき思へば」(萬葉 3963)

위에서 例를 든 三首 모두 悲哀의 色調를 띄고 있지만 그것을 否定하는 곳은 없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893)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두번 만날 수 없는 別離(1140)가 있고, 죽음(3963)이 있고, 하는 場所가 다름 아닌 自己가 살고 있는「世の中」라는 곳인데, 그리고 그 속의 흐름에 自己가 싫든 좋든 간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意識이 들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時間이란 끝없이 되풀이 되어 가는 自然의 循環的 時間의「世」가 아니고, 되풀이 될 수 없는 非可逆性의 時間 乃至 歷史的인 時間의 흐름이 內在되어 있다고 본다.

Ⅶ. 結　　論

以上과 같이 日本 最古의 和歌集인「萬葉集」에서 時間意識을 調査해 본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1. 季節感

大陸의 曆法에 의해 四季를 區分하기 以前 古代 農民들의 時間意識은 自然의 景物에 立脚하여 봄(春) 혹은 여름(夏)이 왔다고 느끼는 自然曆이 그들의 달력이다. 이러한 自然曆의 時間意識은 單純한 生産의 사이클(cycle)이 아니고, 人間 集團의「祭り」가 添加된 時間이다.

2. 달(月)

大陸의 曆法에 의해 觀念的으로 달을 헤아리기 以前 萬葉人들은 實際生活에서 달의 盈虧現象週期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3. 死生觀

女性들의 死生觀은 生과 死 雙方의 世界 사이에 확실한 斷絶이 意識되지 않고, 雙方이 하나의 연속의 世界로써 把握되고 있다. 그러나 男性의 死生觀은 生과 死 사이에 확실한 斷絶을 認定하고 있고 死를 生의 彼岸의 世界라고 보고 있다.

4. 常世

常世란 表現은 그 當時 大和를 中心으로 比較的 좁은 空間 內에서 生活하고 있는 萬葉人들이 그들이 視野를 大舞臺로 擴大해서 먼 곳에 憧憬을 時間的인 遠近法에 依해 나타내려고 한 手法이다.

5.「世」와「世の中」

「世」는 人間이 살고 있는 現在라는 視點으로 퍼져가는 時間的 空間的 世界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時間性은 自然과 親和的인 關係를 맺고 있는 循環的 時間이다.

「世の中」는「世」에 大陸文化인 佛教思想이 介在되어 成立한 新時代의 말로 그 속에는 自然의 循環的 時間의「世」가 아니고 되풀이 될 수 없는 非可逆成이 時間 內至 歷史的인 時間이다.

以上의 論考에서 大陸의 曆法 및 佛教思想 渡來 以前에 萬葉人들의 時間意識의 基本的인 要素는 四季의 自然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循環的 時間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未來로 향해 가는 時間意識은 느낄 수 없고, 다만 過去라는 時間을 意識하면서 現在의 時間에서 享樂的인 生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參 考 文 獻

鶴久編,「萬葉集」, 櫻楓社, 1980.

窪田空穗著,「萬葉集評釋」第一卷～第十一卷, 東京堂出版, 1984.

樓井滿譯注,「萬葉集」, 上・中・下, 旺文社文庫, 1980.

清原和義,「萬葉」, 世界思想社, 1987.

稻岡耕一編,「萬葉集必携」, 學燈社, 1988.

大久保正,「萬葉の傳統」, 塙書房刊, 1981.

中山太郎,「萬葉集の民俗學的研究」, パルトス社, 1983.

中西進,「萬葉集のことばと四季」, 角川選書, 1986.

實方清,「萬葉の美的世界」櫻楓社, 1978.

尾崎暢殃,「萬葉集の形成」, 明治書院, 1981.

尾崎暢殃,「萬葉論考」, 明治書院, 1981.

大畠清,,「萬葉人の宗教」, 山本書店, 1979.

久松潛一,「萬葉集入門」, 講談社 現代新書, 1987.

北山茂天,「萬葉群像」, 岩波新書, 1987.

相郎亨外二人編,「講座日本思想4(時間)」, 東京大學出版會, 1986.

瀧浦靜雄,「時間」, 岩波新書, 1985.

永藤靖,「古代日本文學と時間意識」, 未來社, 1984.

田中元,「古代日本人の時間意識」, 吉川弘文館, 1975.

荒川紘,「古代日本人の宇宙觀」海鳴社, 1987.

「風土記」, 日本古典文學大系2, 岩波書店, 1984.

田中元,「竹取・伊勢物語の世界」, 吉川弘文館, 1982.

三谷榮一,「竹取物語評解」, 有精堂, 1975.

吉野裕子,「日本人の死生觀」, 講談社現代新書, 1982.

市村宏,「萬葉集と萬葉びと」, 明治書院, 1981.

谷鼎,「古今和歌評解」, 有精堂, 1979.

「日本書紀」, 日本古典文學大系67, 岩波書店, 1982.

金恩煒,「日本의 萬葉集」, 民音社, 1983.

玄正晙外共著,「世界의 曆」, 三星文化文庫, 1981.

「日本國語大辭典」, 日本大辭典刊行會, 1980.

「新版廣辭林」, 三省堂, 1971.

北原保雄編, 「全譯古語例解辭典」, 小學館 1987.

Summary

Time Consciousness of "Manyōshū"

Kim Sung-bong

When studying an old book,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Japanese thought from ancient times, I look upon the consciousness of time as the essential subject to examine it.

The reason is that "time" is an important place to risk his life as for a person. Besides history is formed by it from a social national point of view.

How do Manyōjin have the consciousness of time the "Manyōshū"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oldest poems in Japan? In that way I think it requires consideration from various angles.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A Sense of season

Famer's consciousness of time is determined by natural features of the season. In other words nature remained as it is and a natural-calendar which they have assimilated and sympathized with indicated their time.

2. Moon

The consciousness of time which the moon is inclined and riped is connected with ebb and flow, death and revival.

3. A view of life and death.

The consciousness of time seen by women's view of life and death means not severence but a serial world between life and death.

4. In the Land of Eternity

The Manyōjin lived a narrow place centering around Yamato and gardually their sights to the large stage, so they represent far senery in timely far and near.

I think the expression of In the Land of Eternity is a method of it. Time is a kind of a expression of space.

5. 「Yo」 and 「Yononaka」

We define 「Yo」 as the world of time and space that it spreads in a certain point which men is now living. In additional 「Yononaka」 is a expressed by confucian ideas, continuental culture in the later of Manyō.